

8월 온라인 배달음식 주문 2조4천억 역대 최대

온라인쇼핑 거래액 15.7조 전년동월비 16.8% ↑

코로나 영향...모바일쇼핑 비중 72.7% 사상 최대

코로나19와 올림픽 영향으로 지난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2조 이상 늘었다.

온라인 배달음식 주문액은 2조4천억원대로 불어나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16.8%(2조2천726억원) 증가한 15조7천690억원이다.

지난 7월(16조1천996억원)보다 약간 줄었지만 동월(8월) 기준으로는 200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거래액이 감소한 데는 '택배 쉬는 날'(8월14-16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으로 온라인쇼핑 시장은 계속 성장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상품군별로 보면 치킨 등 온라인주문 배달음식 서비스(+44.3%), 음·식료품(+30.8%), 가전·전자·통신기기(+13.7%), 농·축·수산물(+32.5%) 등이 1년 전보다 특히 많이 늘었다. 8월 온라인 배달음식 서비스 거래액



은 2조4천192억원으로, 상품군별 집계 기준 2017년 이래 최대였다. 종전 최대치인 지난 7월(2조3천778억원)보다 1.7% 늘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쿄올림픽의 영향으로 냉동식품, 배달음식 거래가 늘었다"며 "신형 스마트폰 출시, 가전제품의 프리미엄화, 추석 전 지방자치단체의 농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8월 온라인 배달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2조4천19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사진은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고 있는 모습. (광주매일신문 DB)

산물 판매 라이브커머스 행사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22.8% 늘어난 11조4천585억원이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비중은 3.6%포인트 상승한 72.7%로 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

다. 특히 배달음식 서비스는 모바일쇼핑 비중이 97.6%였다.

8월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 비중은 28.0%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운영 형태별로 보면 온라인몰의 거래액은 1년 전보다 20.8% 증가한 11조

9천818억원, 온·오프라인 병행몰은 5.9% 증가한 3조7천872억원로 각각 집계됐다.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종합몰의 거래액은 9조9천149억원(+8.7%), 주된 상품군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전문몰의 거래액은 5조8천541억원(+3.8%)이었다. /연합뉴스

중흥그룹, 대우건설 실사 이달 마무리

"중흥-대우 브랜드 통합 안 해" 재차 강조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실사작업을 이달 중순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중흥그룹은 "실사 결과 심각한 우발채무나 추가부실 등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KDB인베스트먼트(KDBI)와의 주식매매계약(SPA)은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인수와 계열사 편입 이후에도 계열사들이 기존 장점을 계속 이어가려는 '독립경영' 등 그룹의 미래 비전과 청사진을 준비 중이다. 대우건설 인수가 그룹의 '중복 리스크' 보다는 '동반 시너지 효과'로 작용하게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중흥그룹은 대우건설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이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우건설을 살려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인

수 목적"이라며 "대우건설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실행 계획이다.

우선 중흥그룹은 현재 284%(2020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달하는 대우건설의 부채비율을 중흥그룹과 비슷한 수준(105.1%)으로 과감히 낮춰 자산 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대우건설의 해외사업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중흥그룹 관계자는 "중흥그룹은 계열사의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고 대우건설과의 합병이나 브랜드 통합 계획도 없다"며 대우건설의 독립경영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독립경영을 통해 발전하는 것처럼 대우건설도 대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모든 임직원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회기자

광주 소매·유통업 4분기 경기 '떡구름'

광주상의, 60곳 조사...RBSI 108→76 그쳐 코로나에 소비위축·온라인 구매 증가 등 영향

2분기 연속 기준치를 상회했던 광주 지역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지수가 코로나19 4차 유행 여파로 기준치 이하로 하락했다.

5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지난 8월18일-9월16일 광주지역 소매·유통업체 60곳을 대상으로 '2021년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76'을 기록, 3분기(108)보다 32포인트(p) 하락하며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RBSI는 유통업체들의 현상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기준치 이하로 하락한 4분기 전망 지수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계절적 비

수기에 따른 소비 위축, 온라인 중심의 유통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업계의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영항목별로 매출(107→76), 수익(107→75), 비용(89→86), 고용(98→91) 전망 등이 모두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

여기에 매출·수익·비용도 감염병 증가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소비 위축·관리비용 증가 등으로 전분기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 또한 근무시간 축소, 인원 감축, 키오스크 도입 확대 등으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업체별로는 백화점(125→50)의 경우 비수기에 따른 내수 부진과 비대면·온라인 구매 확산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75포인트 하락해 낙폭이 가

장 컸다.

대형마트(100→63)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기업형 식자재마트와의 경쟁 심화, 온라인 구매 중심의 소비구조 변화 등으로 전망치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소매·유통업체에서 제기하는 경영상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소비심리 위축(60.0%)'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비용 상승(16.7%)', '상품가격 상승(10.0%)', '업체 간 경쟁심화(6.6%)', '정부 규제(5.0%)', '기타(1.7%)' 순으로 응답했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과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로 업계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소매·유통업 체감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민간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책 마련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체들의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수회기자

TIME CITY

명품브랜드 시계 수리전문점

타임시티(TIME CITY)

- | 책임 A/S
- | 명품 쿼츠 시계 수리전문
- | 오토매틱 수리 전문
- | 스위스, 독일 시계 수리장비 최다보유 (A/S센터와 동일장비 보유)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 100 (쌍암동 695-1)

영업시간: 평일 10:00 - 20:00 공휴일·토요일 10:00 - 18:00 일요일 휴무

문의: 010-8475-5472 * 근무시간에만 통화가능

늦으시면 앓차하십니다

급매 전문

[상가건물]

- 고창 공음면 (2차선 포장도로변) 법성포, 가마미해수욕장 근거리
- 대지3,707㎡ 가공공장,창고,판매장3개동
- 매가:6억8,000(시세50%)
- ***기든형갈비집,농산물직판장,휴게소종합매장 최적

[화순군 화순읍 대리 동호인주택지]

- 광주에서10분
- 자연녹지 6,600㎡
- 급매가:5억3,800만원(시세50%)
- ***동호인주택4~6동 개발 최적

급히 구합니다 --- 손님 다수 대기중입니다

- 병원신축용땅 1,000㎡ 내외
- 월세 및 투자용 상가 건물 10억~50억
- ***부동산 무엇이던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투데이 경제

광주세관-완도수산물수출협동조합 협약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사진 오른쪽)은 5일 완도수산물수출물류센터에서 완도수산물수출물류협동조합(조합장 박남규)과 농수산식품(K-FOOD)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완도 수산물 수출 종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완도수산물수출물류협동조합은 전북·광여 등 수산물 수집에서부터 검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 완도군 소재 22개 수산물 수출기업이 지난 2020년 11월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수산물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전반에 대한 지원, 수출·FTA활용 등 수출종합컨설팅 제공, 주요 현안 및 정보 공유, 수출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 대책 마련 등이다.

정승환 광주본부세관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 중소 식품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완도의 질 좋은 수산물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조달청, 공공물품 무관 업체 입찰 차단

조달청은 공공 조달 입찰 시 입찰 물품과 관련 없는 업체의 참여 차단을 위해 납품 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공급 입찰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와 입찰 중개자(브로커) 활동으로 인한 공공 조달 질서 훼손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방안이 이은 추가 대책이다.

그동안 물품 등 공급 입찰에서 가격 위주로 낙찰자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납품 예정인 물품을 제안해 평가하는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 방식을 주요 품목에 도입한다.

또 지금까지 제조 물품 위주로 추진됐던 다수 공급자 계약(MAS)을 공급물품에도 확대해 계약업체의 자격요건 확인을 강화한다. /연합뉴스

한전KDN,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

한전KDN(사장 김장현)은 안전경영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인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안전경영위원회는 안전한 근로 환경 제공을 위한 안전경영 전반의 자문·심의를 위한 기구로, 한전KDN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며 사외 전문가, 협력사 임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는 노·사 대표와 사외 전문가, 협력사 직원 등 총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외부위원 위촉식과 안전경영위원회 운영기준 제정에 관한 심의가 진행됐다. /기수회기자